

페미니즘적 의상의 성적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Feministic Fashion's Sexual Image*

밀양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조교수 권미정

대경대학 패션디자인학과
조교수 남후선

영남대학교 의류학과
이정은

Dept. of Fashion Design, Mirya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 Kwon Mie Jung

Dept. of Fashion Design, Tae Kyeung College
Assistant Prof., Nam Hoo Sun

Dept. of Clothing & Textile, Yeungnam University
Lee Jung E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sex image by feministic fashion based on the theory of feminism,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1960's.

Feministic fashion is divided 8 style and analyzed.

For this study, surveying photo of feministic fashion and making out questionnaire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391 university student(184 male, 207 female) living in Taegu and Kyoungpok and i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test.

The result are as follows:

1. The Tendency of perceiving Feministic Fashion's Sexual Image

Male had more positive view on the sexual image of see-through and Body-conscious styles than female.

*본 연구는 1996년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And male showed more negative view on the sexual image of lingerie, punk, madonna or disorganized styl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their opinion on the sex appeal of fashion that exposed some physical part.

Concerning the sexual image of unisex mode, both male and female had an idea that it had nothing to do with sex appeal.

Regarding the preference for sex-expressive fashion, they favored see-through and Body-conscious styles most.

2. In relation to clothing behavior toward sex-expressive fashion, both male and female generally revealed a negative view on fashion that exposed physical part and provoked an impression of keen sex appear.

3. Sexual perception degree about the body, in physical exposure, that physical part from which they felt sex appeal most was the breast. What they most wanted to emphasize was the breast, too. As a physical part that caused their rejection symptom and made them feel hatred both and female pointed out the hips.

I. 서론

여권주의 혹은 남녀동권주의라고도 불려지는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의 논리체계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그 동안 배제되어 온 여성 문제를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부각시켰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남녀평등권의 확립에 여성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여 성취해야될 문제라는 깨달음은 복식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여성의 주체성 회복을 위한 여권운동은 근세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18세기말부터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과거의 성해방은 단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고대부터 존재해 온 가부장적 사고에서의 탈피를 위해 여성이 남성을 따라함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어느 정도 여성의 사회진출이 일반화 되었으므로 여성 자아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의 매력을 한층 더 강조하는 경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여성의 매력은 여성의 성적 매력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바, 성적매력에 대한 판단은 여성 성(性)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받으므로 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오늘날 성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봄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의미의 파악은 패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패션에 나타난 페미니

즘적 표현양식을 여성운동이 시작된 1960년 이후에서 오늘날까지 4시기 -남성복을 그대로 모방했던 시기, 남성복을 수용하지 않고 여성의 성적매력을 강조하던 시기,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조화를 이루던 시기 그리고 성의 개념을 해체시켜 무성·중성을 나타내는 시기-로 구분하여 이에 대한 패션에서의 성적 이미지각 경향 및 선호도,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 그리고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지각정도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는 첫째, 페미니즘과 패션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둘째, 여성패션의 페미니즘적 표현양식에 대한 성적지각정도를 파악 함은 성과 인체에 대한 인식과 의복에서의 성표현의 허용정도를 알고 생활에 적용시키는데 도움을 있으리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페미니즘의 개념

페미니즘은 17세기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여성해방운동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시각 또는 이론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성차별 문제와 잃어버린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어떤 시대나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일반적 사상의 경

향이라고 할 수 있다.

페미니즘(Feminism)이라는 용어는 여권신장론, 남녀동권론 등의 뜻으로 라틴어의 “페미나(Femina)”에서 유래된 단어이다(강정화, 1993).

그러므로 페미니즘은 오랜 세월동안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에 예속되어 부속물로 취급되어 온 여성의 자아를 찾고, 여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문제와 그에 관련된 사회의 편협한 가치체계를 재정립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은정, 1997).

여권운동가들은 시대적 흐름과 그 상황에 따라 페미니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였는데, 크게는 계몽사상과 자유사상에 입각한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성별 동질성을 강조한 전기 페미니즘과 비판과 저항정신에 입각한 여성의 성이 남성의 성과 다를 것을 근본으로 하는 성별 이질성을 강조한 후기 페미니즘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2. 페미니즘의 역사적 배경

인류 최초의 원시사회는 모계중심의 사회로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였으나, 점차 경제적인 생산력이 남성에 의해 이루어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과 사회적 독립성이 상실되었고, 심리적으로 남성들에게 예속되었다. 또한 가부장적인 사회가 형성됨으로 인해 남성의 일과 생산이 중요시되는 반면, 그만큼 여성의 일과 생산의 가치가 약화되어 남성에 의한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 정치적 권한은 남성에게만 주어지게 되었고, 신분과 재산은 부계로만 계승되었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스스로의 권리를 제기하게 된 것은 17~18세기부터라 할 수 있고, 이 시기에 나타난 자본주의의 발전은 여성운동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True Gonzague, 1995).

여성운동은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때를 맞추어 본격화되었는데, 남성의 반대와 구습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

의 전지역으로 파급되어 영국, 독일, 덴마크, 폴란드 등에서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의 미국에서의 여권운동은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던 프랑스 혁명이 유럽 여성들에게 “남성들의 가정내의 폭정”을 타도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인 반면, 미국에서는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흑인과 백인 여성들에게 자신들을 억압하는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치적 조직을 결성할 기회를 주었다(Susan Alice Wakens, 이소영역, 1995).

19세기에는 여성운동이 북미와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어 다국화되었고, 여성단체가 결성되었으며, 여성운동의 사회적 개념이 확립된 시기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사회적 특성상 여러 방면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필요성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아져 사회진출이 늘어났으나, 1930년대의 경제대공황은 실업자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여성의 직업 상실로 이어져 여성의 가정으로의 복귀로 인해 여권운동의 후퇴가 불가피해졌다(Susan Alice Wakens, 이소영역, 1995).

그후 여성운동은 한동안 침체되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저항운동과 함께 새로이 여성해방운동(Woman's Liberation Movement)이라는 사회운동의 형태로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는 여성노동인구의 증가, 중산층 여성의 자아인식, 시민권운동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었다(말린디슨, 한국여성연구소역, 1980).

60년대는 여성해방의 이론과 실천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는데, 페미니스트들이 처음으로 취한 행동이 매년 열린 “미스 아메리카”선발대회에 항의하는 것이었으며 여성의 억압으로 인식한 브래지어를 불태우는 투쟁(bra-burning)의 의미는 여성의 인체의 권리와 자유를 상징하였고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의 패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표적인 것이었다(손미희, 1996).

1970년대는 미국의 여성해방운동이 실질적으로 출범한 시기로 여성운동단체들은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제를 기본으로 한 현대 자

유주의적 페미니즘의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1980년대에 와서 여성운동이 더욱 고조되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페미니스트들이 'WAF' 라는 하나의 단체를 결성하여 확고한 여성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다른 인권운동과 함께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현대에 와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남성중심의 체계를 부정하고 이성중심적인 합리주의에 반대하며(박미화, 1994), 여성과 남성의 수평적인 관계 회복이라는 민주적 원리를 근본으로 한 남성중심의 가치체계 아래 구성된 여성에 대한 관념을 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남녀를 동등한 인간적 수준으로 존중한다는 가치 중립적 입장의 수립하에 여성만의 해방운동이 아닌 남녀 공동의, 그리고 주체성의 해방운동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전혜정, 1994).

이는 '억압된 여성'을 회복하고 '왜곡된 남성'을

바로 잡으며, 나아가 남성에 의한 억압과 가부장적 체계와 성별 노동분업 등, 폭력적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장미경편저, 1996). 또한 여성운동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여성에 잠재되어 있는 열등의식과 잘못된 의식을 없애고,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체성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페미니즘은 사회 이론중의 하나로, 각 시대마다 다른 사상들과 작용하여 견해가 다른 페미니즘을 형성하였으나, '여성의 주체성 회복'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여성억압의 원인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 표현양식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의 차이 그 자체보다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다른 것으로부터 남녀의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표현양식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이미지를 여성에게 그대로 이입시켜 본래의 여성을 은폐하고자 함. ■ 여성이 남성복의 아이템을 사용하여 남성화된 스타일을 착용함. ■ 대표적인 스타일 : 매니쉬 스타일 ex)노동복식(진), 밀리터리 룩, 가르손느 룩, 댄디 룩, 블루머 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남성복을 착용하는 것은 남성주의 사고방식을 더욱 확고히 하여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모순이라는 지적으로 인해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이론을 바탕으로 여성의 성을 더욱 강조하고 남녀의 성차를 인정하게 됨. ■ 70년대말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는 패션의 등장은 여성 신체에 대한 에로티시즘의 상징임. ■ 여성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남녀 이질성을 강조함. ■ 대표적인 스타일 : 시-스루 스타일, 속옷의 겹옷화, 보디 컨셔스 스타일, 글래머 스타일, 신체 노출의상
양성적 이미지	해체적 이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sex'보다 사회, 문화, 역사에 의해 결정되는 'gender'에 치중하는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에서 발생한 것임. ■ 양성성(androgynous)은 남성적인 특성과 여성적인 특성이 조화를 이루면서 양쪽 모두가 공존한다는 것임. ■ 현대 패션에 페미니즘 시각에 의해 더욱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일로 정착됨. (크로스 드레싱) ■ 크로스 드레싱은 여성에 있어서 사회진출에 의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그들의 생활방식이 표현된 것임 ■ 대표적인 스타일 : 앤드로지너스 스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에 있어 앤드로지너스의 양쪽 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과 달리 해체는 성의 개념을 초월하여 성자체에 구분이 없는 무성·중성적인 것을 의미함. ■ 해체론의 이념중에서 남녀 이분법에 대한 해체는 페미니즘의 남녀의 구분을 없애는 것과 맥락을 같이함. ■ 패션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함. ■ 대표적인 스타일 : 젠더리스 스타일, 속옷의 겹옷화(T.P.O개념의 탈피), 노출·슬래쉬·속옷의 희화화(성의 상호텍스트성), 푸어룩

복 스타일이 정해진다고 볼 때, 페미니즘은 패션의 시대적 흐름에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남성이 주체인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성적 특징을 새롭게 인식시키며, 여성 자아를 부각시키는 것이 페미니즘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60년대이래 페미니즘은 남녀의 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남성과의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에 치중하였는데, 이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복을 착용하게 하여 남성화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후 70년대 후반에는 여성의 성을 부각시키며 남녀 이질론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페미니즘으로 전환되면서, 80년대 패션에는 성적매력을 강조하는 의복 스타일이 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패션의 흐름은 80년대 중반부터 성(性)을 'SEX' 대신 'GENDER'로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페미니즘을 토대로 한 남성과 여성의 동질성과 이질성에 대한 것을 거부하고 양쪽 모두를 공유하는 인간성을 의미하는 양성적 스타일(androgenous style)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양성적 스타일은 남성과 여성을 자유롭게 조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복식으로 창출되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쪽이 다른 성을 모방하거나, 양쪽의 성을 모두 공유하는 것이 아닌 성 자체의 구분이 없는 무성·중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성의 해체적이면서 파괴적인 스타일이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복에 표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표현되어진 의복 스타일을 패션 용어로 젠더리스 스타일(genderless style)이라 하는데, 젠더리스는 지금까지의 유니섹스(unisex)나 앤드로지너스(androgenous)와 다른 개념으로 미니멀리즘에 근거한 새로운 모드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션에 있어서 페미니즘적 표현양식은 여성의복에 있어 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그리고 해체적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의복 스타일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재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표현 양식 중에서 성적 이미지 인지경향과 선호도, 성표현 의상에 대한 의복행동 및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 지각정도를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방법과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첫째, 페미니즘적 표현양식에 따른 패션에서의 성적 이미지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 여성응답자에 한해서 제시한 의상의 선호도를 살펴본다.

둘째, 성표현 의상에 대한 의복행동을 성별에 따라 그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 지각정도를 살펴본다.

2. 조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 본 연구를 위해 사진선정 및 설문문항이 작성되었다.
- 사진은 4가지 페미니즘적 표현양식(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해체적 이미지)에 따라 각 2장씩 총 8장의 사진이 Collection, Moda In, Korea Vogue에서 선정되었다.
- 설문문항은 페미니즘적 의상의 성적 이미지 지각에 관한 24문항과 선호도 1문항,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 26문항,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지각 정도 3문항, 개인특성 2문항 등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페미니즘적 의상의 성적이미지 지각에 관한 문항은 권미정(1994)의 문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예비조사에서 나타난 객관성이 낮은 문항과 타당성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 문항은 조윤주 (1995)의 문항과 여러 선행연구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 신체부위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문항은 조윤주 (1995)가 가슴, 복부, 등, 엉덩이, 팔, 다리의 6부위로 나눈 것과 예비조사에서 '신체노출시 가장 예로틱한 부위'에 대한 의류학과 대학원생의 응답에서 나타난 '어깨'에 대한 항목을 추가시켰다.
- 개인적 특성문항은 본 조사자가 작성하였다.
- 본 조사시 사진의 제시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사진의 배경과 얼굴부분을 검정색으로 처리하여 조사 대상자 개개인에게 배부하였으며 설문문항 측정시간은 약 20분이 소요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의 선정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하였고, 1998년 5~6월중에 대구·경북지역의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총 42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나 회수된 409부 중에서 불확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91부(남자:184명, 여자:207명)를 통계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분석은 SPSS PC Package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을 사용하였다.

의상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 인지경향은 먼저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진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성적 이미지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성표현 의상의 의복행동에 관한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관련문항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요인추출을 위해, 요인 분석(Factor Analysis)에 있어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의 회전방법은 Kaiser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였다.

요인의 해석에 있어서는 요인 회전후 해당 변수

들의 각 문항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명을 규명하였으며, 분석된 요인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측정한 결과 7개의 요인변수에 대해 Alpha값은 .7248이며 표준화된 항목의 Alpha값은 .7320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크론바하의 알파값이 .60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분석결과, 성표현 의상의 의복행동은 7가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신체부위에 대한 지각 정도에 대한 분석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 이미지 지각 경향

현대 패션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표현양식에 따른 8가지 의상에 대한 성적이미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사진 1〉은 시스루 스타일, 〈사진 2〉는 바디컨서스 스타일, 〈사진 3〉은 콜렛 스타일, 〈사진 4〉는 등노출 스타일, 〈사진 5〉는 신체노출이 심한 스타일, 〈사진 6〉은 양성적 스타일, 〈사진 7〉은 마돈나 스타일, 〈사진 8〉은 해체적 스타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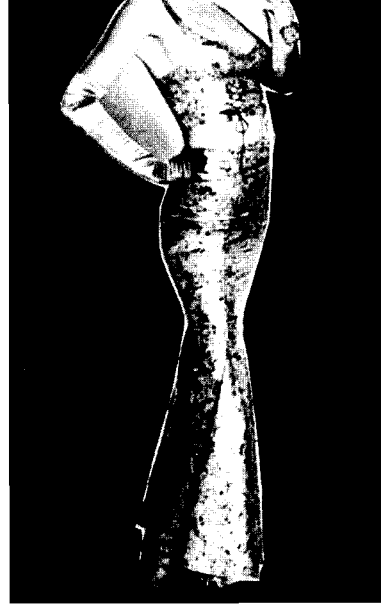
1)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이미지 지각 경향

사진별 의상에 대한 성적이미지 빈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이미지 지각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이미지 분석결과, 완전한 신체노출이 아닌 시스루 스타일과 바디컨서스 스타일은 유희·낭만적 이미지, 감성·매혹적 이미지, 성적매력이 있는 이미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나 거부적, 혐오적,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결과를 얻었다.
마돈나 스타일이나 해체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거

부적, 혐오적,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로 지각하고
있었다. 특히 마돈나 스타일은 자연스럽거나 아름답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지 않다는 응답을 하였고 반면에 해체적인 스타일에 대한 응답은 아주 관능적이고 섹시하며 성적 매력을

주는 스타일이라는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신체노출이 심한 의상과 볼셋 스타일은 환상적인.

〈표 2〉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이미지 지각

사진 이미지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감성매혹적	2.03	0.88	2.50	0.95	2.60	0.15	2.79	1.02	2.76	1.18	3.41	1.15	3.47	1.24	2.16	1.36
유혹낭만적	1.77	0.81	2.39	0.87	2.32	0.89	2.47	0.97	2.63	1.03	3.39	1.16	2.95	1.20	1.38	0.76
낭만신비적	1.93	1.03	3.00	0.99	3.36	0.96	3.22	1.07	3.69	0.97	3.74	1.09	3.78	1.10	2.76	1.33
무감각적	3.93	0.96	3.49	0.99	3.42	0.98	3.40	1.05	3.15	1.11	2.61	1.24	3.09	1.21	4.12	1.10
거부적	3.49	1.10	3.35	1.02	3.06	1.06	3.26	1.07	3.14	1.15	3.21	1.29	1.93	0.96	2.21	1.31
혐오적	3.79	1.05	3.62	0.98	3.38	1.05	3.40	1.02	3.39	1.07	3.49	1.16	2.12	1.10	2.47	1.28
야한	2.10	0.90	2.66	0.97	2.36	1.03	2.42	0.98	2.39	1.02	3.30	1.29	2.46	1.20	1.41	0.70
아름다운	2.12	0.99	3.01	0.97	3.19	1.00	3.09	1.03	3.20	1.00	3.74	1.02	4.01	0.99	2.75	1.28
본능적인	2.42	0.93	2.73	1.00	2.49	0.91	2.59	0.96	2.70	0.98	3.32	1.12	2.68	1.21	1.85	0.92
관능적인	2.15	0.96	2.42	0.94	2.35	0.96	2.45	1.01	2.70	1.04	3.30	1.17	2.58	1.20	1.76	0.91
성적매력이있는	1.04	0.96	2.51	0.99	2.38	1.05	2.51	1.06	2.81	1.09	3.36	1.18	2.91	1.23	1.84	1.06
매력적인	2.07	0.95	2.63	0.98	2.79	1.09	2.64	1.08	2.82	1.04	3.37	1.12	3.45	1.12	2.31	1.19
섹시한	2.10	0.99	2.38	1.00	2.30	0.99	2.36	1.02	2.64	1.05	3.31	1.19	2.79	1.21	1.75	0.98
색정·선정적	2.58	1.22	2.76	1.07	2.40	1.06	2.67	1.08	2.82	1.11	3.45	1.21	2.21	1.19	1.80	1.04
은밀한	2.31	1.14	3.49	0.92	3.18	1.05	3.06	1.11	3.54	1.02	3.48	1.22	3.50	1.17	2.38	1.24
부끄러운	3.05	1.11	3.79	0.99	3.76	0.93	3.64	1.02	3.50	1.13	3.69	1.15	3.58	1.27	2.80	1.33
부드러운	2.30	1.11	3.66	1.00	3.75	1.00	3.58	1.06	3.62	1.02	3.66	2.35	4.20	0.88	2.97	1.25
육감적인	2.48	1.10	2.52	1.03	2.37	1.03	2.50	0.95	2.75	1.02	3.26	1.19	2.55	1.19	1.74	0.92
자연스러운	2.85	1.20	3.57	0.93	3.68	0.95	3.58	0.98	3.26	1.11	3.30	1.19	4.14	0.89	3.40	1.22
충동적인	2.91	1.15	2.97	1.04	2.59	1.01	2.71	1.08	2.93	1.09	3.34	1.15	2.54	1.22	2.00	1.05
환상적인	2.35	1.09	3.54	1.02	3.58	0.99	3.39	1.03	3.61	1.07	3.84	1.01	3.76	1.11	2.74	1.30
황홀한	2.43	1.12	3.56	0.98	3.58	1.05	3.45	1.11	3.76	1.05	3.93	1.00	3.90	1.04	2.88	1.27
경박한	3.77	1.10	3.21	1.11	2.93	1.15	3.15	1.09	3.16	1.15	3.53	1.21	2.11	1.23	2.63	1.28
퇴폐적인	3.89	1.17	3.36	1.22	3.01	1.22	3.26	1.19	3.38	1.20	3.65	1.22	1.98	1.26	2.66	1.41

황홀한 이미지에 대한 응답에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충동적인, 관능적인, 육감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등노출 스타일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응답에서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결과가 나왔으나 양성적 스타일에 대한 이미지분석은 대부분이 부정적인 응답 결과를 나타냈으나 무감각적 이미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표 2〉의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이미지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2) 성별에 따른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 이미지 지각

〈표 4〉는 성별에 따른 페미니즘적 의상에 표현된

성적 이미지 지각정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성적 이미지 지각정도

〈사진 1〉의 시스루 스타일에 대한 성적이미지 지각의 결과는 남녀 모두 유혹·자극적 분위기, 거부적 분위기, 본능적인, 관능적인, 성적매력이 있는, 매력적인, 섹시한, 은밀한 의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감성·매혹적 분위기, 낭만·신비적 분위기에 대한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시스루 스타일에서의 비쳐 보이는 신체에는 남자들의 호기심을 더욱 유발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환상적인, 황홀한 이미지에 대한 것은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에 대한 것은 여자가 높게 나타났다. 남자들은 시스루 스타일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여자들은 꺼리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이미지 분석결과

		분석결과
사진 1	사스루 스타일	무감각적, 거부적, 혐오적,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사진 2	바디컨서스 스타일	유혹낭만적, 관능적, 섹시한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나타냄.
사진 3	콜셋 스타일	색정·선정적, 야한, 관능적인, 육감적인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사진 4	등노출 스타일	야한, 성적매력이 있는, 섹시한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사진 5	신체노출이 심한 스타일	환상적인, 황홀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육감적인, 충동적인, 관능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냄.
사진 6	양성적 스타일	무감각적 이미지에 대해 강한 긍정의 견해를 나타냄.
사진 7	마돈나 스타일	거부적, 혐오적, 경박한, 퇴폐적인, 색정·선정적, 충동적인 이미지에 대해 긍정의 견해를 나타냄.
사진 8	해체적 스타일	야한, 거부적, 본능적인, 관능적인, 성적매력이 있는, 섹시한, 색정·선정적, 육감적인, 충동적인,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에 대해 긍정의 견해를 나타냄.

〈사진 2〉의 신체의 곡선이 드러나는 바디컨서스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 분석 결과 감성·매혹적 분위기, 본능적인, 섹시한, 은밀한, 퇴폐적인 이미지에 대해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무감각적, 부끄러운,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퇴폐적인 이미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유의차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 시각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여자의 경우 직접 착용할 때를 고려한 것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사진 3〉의 콜셋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 분석 결과는 거부적, 혐오적, 육감적,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콜셋 스타일은 속옷의 겹옷화 현상으로 속옷의 형태가 겹옷으로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사진 4〉의 등노출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 분석결과는 낭만·신비적, 부끄러운,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황홀한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부적, 혐오적인 분위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진 5〉의 신체노출이 심한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지각에 대한 분석은 낭만·신비적, 거부적, 혐오적,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충동적인, 경박한 이

미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가 없었다. 무감각적 분위기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심한 노출은 도리어 무감각해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제외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진 6〉의 양성적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 분석 결과는 감성·매혹적, 유혹·자극적, 낭만·신비적, 아름다운, 부끄러운, 황홀한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과로 보아 양성적 스타일은 성적인 매력과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사진 7〉의 마돈나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 분석결과는 남녀가 대부분의 이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무감각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마돈나 스타일은 매력적이고 섹시하며 퇴폐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사진 8〉의 해체적인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 분석결과는 감성·매혹적, 유혹·자극적, 무감각적인 분위기에서는 성별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야한, 본능적인, 관능적인, 성적매력이 있는, 섹시한, 색정·선정적, 육감적인,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남

<표 4> 성별에 따른 성적 이미지 자극정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감성·매혹적	215	183	25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유혹·자극적	178	175	0348	245	234	1231	233	231	0194	247	248	-0110	248	277	-2860**	1931
남반·신비적	211	176	3388**	307	294	1233	321	348	-2811**	360	378	-1824	381	375	0502	289
무감각적	381	404	-2354	337	360	-2314*	340	344	-0426	328	304	2082*	289	327	-3140**	401
거부적	345	353	-0675	342	328	1355	328	286	4076***	341	313	-1657	202	184	1860	289
혐오적	364	392	-2663**	357	365	-0781	360	319	3868***	329	348	-1653	218	206	1134	283
야한	196	223	-2945**	258	273	-1557	231	240	-0875	222	254	-3179**	265	229	2941**	142
아름다운	221	203	1718	296	304	-0830	288	347	-6211***	305	334	-2820**	390	412	-2200*	241
부능적인	239	244	-0621	284	263	2066*	247	250	-0321	260	280	-2017*	290	248	3500**	182
관능적인	208	222	-1392	251	233	1847	240	230	0951	255	283	-2660**	289	231	4872***	178
상쾌매력이있는	213	201	-0319	258	244	1406	239	238	0865	255	246	0842	260	300	-3706***	312
매력적인	213	201	1251	266	261	0388	254	301	-4311***	271	292	-2018*	344	346	-0163	214
섹시한	212	108	0370	249	228	2066*	227	232	-0517	243	283	-3788***	298	282	3017**	172
색정·선정적	241	272	-2505*	279	273	0541	243	237	0382	259	303	-4050***	253	193	5063***	177
은밀한	224	238	-1177	361	338	2453*	314	322	-0738	340	367	-2587*	360	341	1676	218
부끄러운	295	314	-1727	360	396	-3638***	361	390	-3093**	331	367	-3184**	339	374	-2739**	261
부드러운	246	216	2664**	346	383	-3710***	348	399	-5106***	359	364	-0538	408	431	-2641**	277
유감적인	235	260	-2262*	261	244	1668	253	224	2779**	263	285	-2131*	288	225	5360***	174
자연스러운	301	271	2400*	345	368	-2443*	343	389	-4831***	332	320	1051	404	422	-1984*	322
충동적인	272	308	-3120**	302	283	0799	261	257	0329	282	302	-1899	278	233	3660***	186
환상적인	254	218	3304**	357	352	0421	334	379	-4538***	347	373	-2338*	379	373	0479	249
황홀한	257	230	2369*	358	354	0351	345	370	-2366*	354	397	-4058***	392	388	0327	260
경박한	358	394	-3240**	327	315	1072	315	273	3585***	307	323	-1391	223	200	1872	270
퇴폐적인	372	405	-2780**	349	325	2023*	328	276	4241***	318	355	-3000**	214	184	2362*	278

*P<05 **P<01 ***P<001

녀간 유의차가 없었으며 모두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거부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혐오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3)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선호도

〈표 5〉는 8개 사진에 대해 '착용하고 싶은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한 결과로 제시된 사진 자료가 여성의상이므로 여성응답자들만 조사·분석되었다.

여대생들은 〈사진 1〉의 시스루 스타일과 〈사진 2〉의 바디컨서스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진 4〉의 등노출 스타일, 〈사진 5〉의 신체노출이 심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진 7〉의 마돈나 스타일과 〈사진 8〉의 해체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을 보였다.

〈사진 1〉이나 〈사진 2〉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착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라 응답자들이 선호하는 것이고 〈사진 4〉, 〈사진 5〉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신감이 있는 응답자들이 선호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대체적으로 밀착형태나 시스루 형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신체노출에는 거부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性)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에 대한 분석은 관련성이 있는 문항들을 서로 묶어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복행동에 관한 26개의 항목을 분석한 결과 7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1은 전체 변량중 15.480%를 설명하여 의복행동3), 의복행동6), 의복행동7), 의복행동8), 의복행동9), 의복행동10)을 포함하

고 있어 요인명을 "성적 매력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전체 변량중 11.938%를 설명하여 의복행동5), 의복행동20), 의복행동21), 의복행동22), 의복행동23), 의복행동24)의 6개의 문항이 묶여서 요인명을 "선정성"이라고 하였다. 요인 3은 의복행동15), 의복행동18), 의복행동19) 3개의 문항으로써 7.625%를 설명하여 "정숙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4는 "매력성"으로 의복행동1), 의복행동2), 의복행동4), 의복행동16), 의복행동25)의 문항이 묶여 6.031%를 나타내었다. 요인 5는 전체 변량중 5.4%를 설명하여 의복행동13), 의복행동14)를 포함하고 있어 요인명을 "자기 만족성"이라 하였고, 요인 6은 의복행동17), 의복행동26)을 묶어서 전체 변량중 4.541%를 나타내어 요인 명을 "자극성"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7은 전체 변량중 3.945%를 나타내어 의복행동11), 의복행동12)의 문항이 묶여서 요인명을 "주의 집중성"으로 설명하였다.

요인명을 명명하는데 있어서는 조운주(1995)의 의복행동과 착장태도에 대한 요인명을 참고로 하였다.

〈표 6〉과 〈표 7〉은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 분석결과이다.

26개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에 대해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자극성은 남녀간의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적 매력성, 선정성, 정숙성, 매력성, 자기 만족성은 $P < 0.001$ 수준에서 높은 유의차를 보였다.

조운주의 연구에서 선정성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왔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 정숙성과 주의 집중성에 대해서는 조운주의 연구에서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남자보다도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착용하고 싶은 정도

구 분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전 체
여 자	빈 도	83	85	31	68	63	39	2	11	382
	%	21.7	22.3	8.1	17.8	16.5	10.2	0.5	2.9	100

<표 6> 성표현 의상 의복행동에 관한 요인분석

설문문항	요인	성분	공유치	고유치	분산율(%)
3) 여름에 브래지어가 비치는 얇은 옷차림이 섹시하다. 6) 등이 드러나는 옷은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7) 복부(배꼽)가 드러나는 옷은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8) 엉덩이가 보일 정도의 미니스커트는 아주 자극적이다. 9) 가슴이 보일 정도로 네크라인이 깊게 파인 옷은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10) 어깨가 드러나는 옷은 섹시해 보인다.	요인 1 성적 매력성	.383 .638 .616 .756 .760 .688	498 583 516 630 652 517	4025	15.480
5) 몸에 꼭 끼는 바지를 입는 것이 미니스커트보다 섹시해 보인다. 20) 바지의 상표가 성기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은 자극적인 표현이다. 21) 남성이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몸에 맞는 셔츠를 입는 것은 가슴이 강조됨으로 자극적이다. 22) 남성이 색상이 화려한 광택소재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에로틱하다. 23) 남성이 시스루룩(속이 비치는 옷)을 입는 것은 섹시하다. 24) 찢어진 청바지는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한다.	요인 2 선정성	.307 .480 .565 .736 .702 .626	254 515 592 602 579 525	3104	11.938
15) 심한 노출은 오히려 거부감이 생긴다. 18) T.V에서 여자들의 심한 노출의상을 입는 것을 보면 거부감이 생긴다. 19) 남성이 몸에 꼭끼는 바지를 입는 것은 매우 선정적이다.	요인 3 정숙성	.672 .618 .634	511 534 565	1,982	7.625
1) 자기한테 어울리면 선정적인 옷을 입어도 좋다. 2) 여자의 옷은 섹시해 보이는 것이 좋다. 4) 의복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과시하는 것이 좋다. 16) 파티같은 모임에서는 노출이 심한 자극적인 옷차림을 해도 무방하다. 25) 남성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매력적이다.	요인 4 매력성	.671 .603 .628 .598 .379	552 618 472 529 429	1,568	6.031
13) 선정적인 의복은 자신의 몸매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입어야 한다. 14) 뚱뚱한 사람이 노출의복을 입으면 보기 흉하다.	요인 5 자기만족성	.799 .852	684 740	1,404	5.400
17) 스판 소재의 몸에 맞는 상의는 가슴선이 드러남으로 자극적이다. 26) 스커트 길이가 길어도 트임이 있어서 걸을때 다리가 노출되는 것은 섹시해 보인다.	요인 6 자극성	.797 .416	702 374	1,818	4.541
11) 소매가 없는 상의는 매력적이다. 12) 노출의복을 입는 것은 이성의 주의를 끌기위해서 이다.	요인 7 주의 집중성	.671 .469	492 626	1,026	3.945

<표 7>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의 타당성 검정을 위한 요인 분석 결과

	성적매력성	선정성	정숙성	매력성	자기만족성	자극성	주의집중성
고유치	4025	3104	1982	1568	1404	1181	1026
분산율(%)	15.480	11.938	7.625	6.031	5.400	4.541	3.945
누적(%)	15.480	21.417	35.041	41.072	46.472	51.013	54.958

〈표 8〉 성표현 의상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결과

	남 자		여 자		T
	M	SD	M	SD	
성적 매력성	-0.1878	1.0893	0.1669	0.8828	-3.510***
선정성	0.4507	0.9771	-0.4006	0.8379	9.190***
정숙성	-0.2255	1.0047	0.2005	0.9542	-4.298***
매력성	-0.1745	0.9312	0.1551	1.0350	-3.296***
자기만족성	0.3375	0.9951	-0.3000	0.9062	6.594***
자극성	0.41	0.9841	-3.660	1.0149	0.768
주의집중성	-0.1201	0.9787	0.1068	1.0088	-2.252*

*P<.05 **P<.01 ***P<.001

〈표 9〉 신체부위별 지각 정도

	성적매력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		강조하고 싶은 신체 부위		노출시 거부감·혐오감을 주는 신체부위	
	성별빈도(%)		성별빈도(%)		성별빈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어 깨	28(7.9)	61(15.0)	71(20.5)	70(18.4)	12(3.7)	7(1.8)
다 리	74(20.8)	58(14.3)	73(21.0)	101(26.6)	17(5.2)	11(2.8)
배	1.8(5.1)	8(2.0)	21(6.1)	21(5.5)	104(31.9)	92(23.4)
등	14(3.8)	40(9.9)	9(2.6)	23(6.1)	42(12.9)	31(7.9)
엉덩이	81(22.8)	73(18.0)	31(8.9)	13(3.4)	105(32.2)	165(42.0)
팔	7(2.0)	11(2.7)	41(11.8)	49(12.9)	11(3.4)	4(1.0)
가 슴	133(37.5)	155(38.2)	101(29.1)	103(27.1)	35(10.7)	83(21.1)
전 체	355(46.6)	406(53.4)	327(47.7)	380(52.3)	326(45.3)	393(54.7)

3.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 지각정도

신체중 가장 성적 매력이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부위, 강조하고 싶은 부위, 노출했을 때 거부감, 혐오감을 주는 신체부위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는 〈표 9〉와 같다.

성적 매력이 느껴지는 신체부위에 있어, 남성은 가슴, 엉덩이, 다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가슴, 엉덩이, 어깨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가슴은 남녀 상관없이 성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부위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가슴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가슴이 드러나는 의상의 직접적인 에로티시즘을 나타내는 신체부위로 현대에까지 그 맥을 이어오는 대표적인 에로틱한 신체부위임을 알 수 있다.

강조하고 싶은 부위를 살펴본 결과, 남녀 모두가

슴, 다리, 어깨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출을 했을 때 거부감, 혐오감을 주는 신체 부위로 남자는 엉덩이, 배, 등이고, 여자의 경우는 엉덩이, 배, 가슴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상관없이 엉덩이의 노출을 가장 거부하고 혐오하고 있으며, 가슴의 경우 성적 매력이 가장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제2의 성이기도 한 가슴의 노출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V. 결 론

페미니즘은 과거의 남성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기 위한 여성들의 주체의식을 일깨우고 사회의 편

협한 가치체계를 재정립시키기 위한 사조로서, 현재에 이르러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성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져온 페미니즘은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도 복식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변화과정 속에서 시대별로 그 특징을 이루어 왔다.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전개된 페미니즘 이론에 근거하여 페미니즘적 의상의 표현양식을 4가지-남성적 이미지, 여성적 이미지, 양성적 이미지, 해체적 이미지-로 나누어 이들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사진을 2장씩 총 8장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진에 대해 남녀 대학생들의 성적 이미지 지각과 성표현 의상에 대한 의복행동,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 지각 정도를 알아보았다.

자료는 빈도분석, T-test,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 이미지 지각 경향

시스루 스타일, 바다컨서스 스타일에 대한 성적 이미지 인식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콜셋 스타일에 대해서는 거부적, 혐오적, 경박한, 퇴폐적인 이미지를 남자의 인식이 높게 나타낸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등노출 스타일은 성적매력이 있는 이미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거부적, 혐오적 분위기에서는 남자의 인식이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체노출이 심한 스타일에 대해서는 남녀별로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무감각적 분위기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성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남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마돈나 스타일은 성적인 매력성에 관한 이미지에서 남녀의 유의한 차가 나타났으며 무감각적 분위기와 아름다운 이미지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낮게 나타났다.

해체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성적 매력성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 남녀 모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으며 무감각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여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혐오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페미니즘적 표현의 의상에서 본인이 착용하고 싶은 의상은 여자의 경우 시스루 스타일과 바다 컨서스 스타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돈나 스타일과 해체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다.

2. 성표현 의상에 관한 의복행동

성표현 의상에 대한 의복행동에서는 성적 매력성, 선정성, 정숙성, 매력성, 자기 만족성, 주의집중성에 대한 것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적매력성, 정숙성, 매력성, 주의집중성은 남자보다 여자가, 선정성 자기 만족성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조윤주의 '정숙성과 주의집중성에 대해 유의차가 없었다'는 결과와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었다.

3.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 지각정도

신체부위에 대한 성적 지각 정도는 성적 매력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부위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가슴, 엉덩이, 다리의 순으로, 여자의 경우 가슴, 엉덩이, 어깨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조하고 싶은 부위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가슴, 다리, 어깨로 나타났다.

노출시 거부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남자의 경우 엉덩이, 배, 등이고 여자는 엉덩이, 배, 가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사·분석에 있어 대구·경북지역의 남녀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적 의상에 대한 성적 지각정도의 차이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는 다양한 연령층을 비교하거나 또는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페미니즘은 의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이므로 앞으로 페미니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1) 강정화(1993). 현대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경은주(1995). 현대복식에 적용된 해체주의적 표현방법. 홍익대 석사논문.
- 3) 광미영·정홍숙(1991). 여성해방운동이 서양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 4) 권미정(1994). 의상디자인의 에로티시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 5) 김명주(1994). 현대 복식과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연구 -초현실주의 팝아트 포스트모더니즘-. 서울여대 석사논문.
- 6) 김미경(1983). 현대여성복식의 특성 및 그 의미에 관한 고찰. 숙명여대석사논문.
- 7) 김혜정·임영자(1993). 포스트모더니즘 의류광고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 6(21).
- 8) 김홍희(1987). 페미니즘 문학과 여성운동. 서울: 평민사(또하나의 문학 3호).
- 9) 나채희(1986). New Wave Fashion. 이화여대 석사논문.
- 10) 남후남(1992).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여성의 인체 노출에 관한 고찰. 숙명여대 석사논문.
- 11) 도규희·권미정(1992). 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과 에로티시즘 -포스트모더니즘입장에서-. 경일대 논문집29권.
- 12) 로즈마리 루터. 최광복역(1983). 여성해방과 성의 혁명. 일월서각.
- 13) 말린 디슨. 한국여성연구소역(1980). 여성사회철학. 이화여대 출판부.
- 14) 민미홍(1989). 에로티시즘 표현에 관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15) 문경옥(1981). 기능적으로 여성 양복바지에 대한 고찰. 숙명여대석사논문.
- 16) 박명희(1991). 1980년대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17) 박미화(1994). 현대 미술에 나타난 페미니즘의 이해.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18) 박미라(1995). 남성복의 여성화에 대한 연구 -1991~1995년을 중심으로-. 동덕여대 석사논문.
- 19) 박옥련(1994). 인간과 복식. 경성대학교 출판부.
- 20) 백기수(1993).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21) 서양철학사 연구회편저(1994). 반철학으로서의 철학 지성의 샘.
- 22) 손미희(1996). 페미니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 23) 신상옥(1992). 서양복식사. 수학사.
- 24) 신수옥(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특성 연구 -성논리와 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 25) 오희선(1996).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교학연구사.
- 26) 월간미술(1994. 8).
- 27) 유송옥·이은영·황선진(1996). 복식문화. 교문사.
- 28) 유은정(1997). 현대 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표현양식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9) 이소영·정정호공편(1992).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한신문화사.
- 30) 이정옥외 2인(1987). 서양복식사. 형설출판사.
- 31) 이정후·양숙희(1997). 크로싱 드레스에 관한 연구. 복식학회지35권.
- 32) 이효진(1994).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초현실주의와 팝아트 의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복식학회지7(23).
- 33) 장미경 편저(1996).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문원.
- 34) 전해정(1994). 페미니즘과 패션. 서울여대 연구논총.
- 35) 정현숙·정홍숙(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학회지.
- 36) 조규화(1992). 복식미학. 수학사.
- 37) 조윤주(1995). 복식에 있어서 노출을 통한 선정

- 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성대 석사학위논문.
- 38) 채금석(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 39) 채영애(1976). 패션에 나타난 에로티시즘 -서양의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 40) 최현숙(1996). 패션과 여성의 신체에 관한 페미니즘 시각에서의 재조명(I).
-코르셋의 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34(1).
- 41) 캐롤린 라마자글루, 김정선역(1997).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문예출판사.
- 42) 한수연(1994). 1960년대의 의상에 나타난 미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43) Alison Lurie, 유태순역(1981). 의복과 언어. 경춘사.
- 44) Maggie Humm, 심정순 · 엄경숙역(1995). 페미니즘 이론사전. 삼신각.
- 45) Rosemarie Tong, 이소영역(1995). 페미니즘 사상. 서울:한신문화사.
- 46) Susan Alice Wakins, 이소영역(1995). 페미니즘. 이두.
- 47) True Gongzgue, 이재형 · 도화진역(1995). 세계여성사. 문예출판사.
- 48) Angela McRobbie(1994). Postmodernism and popular culture. Routledge(London).
- 49) Black, J. Anderson & Madge Garland(1980). A history of Fashion, London:orbis publishing.
- 50) Evans & Thomton(1989). Women&Fashion. New York Quartet Book.
- 51) John Charvet(1982). Feminism. J.M. Dent&Sons Ltd.
- 52) Lynn Schnumberger(1991). Let There be Clothes. Workman.
- 53) Who's afraid of feminism. Women in action. 1995(3)